

은행권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 분석

신 용 상

1. 서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도 경기변동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은행들은 경기침체에 대기업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과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대출금을 우선적으로 회수 또는 축소시키는 반면에 경기확장기에는 은행들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 엄격한 대출심사 없이 대출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여타 대출형태보다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은행의 부실여신 규모 확대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대신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줄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 등을 먼저 축소하게 된다. 특히 신BIS 자기자본규제 협약의 도입으로 은행이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이 강화되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창업기업과 기술집약형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이에 따라 경기가 나쁠 때 특별융자 형태로 보증규모를 늘려 중소기업을 지원하던 행태가 사라지면서 중소기업대출의 경기변동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금융회사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대형화, 성과위주의 경영형태, 외국계 금융자본의 국내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산업 내에 수익성 및 안정성 위주의 시장원리가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금융회사들도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행태를 신속히 변화시키는 등 금융회사와 기업간에 거래지향적 금융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는 기업대출 규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고 담보가 부족해 주로 관계지향적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가 단순히 중소기업대출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 즉, 중소기업 자금조달 환경이 크게 변화되면서 향후에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변화되고 나아가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및 생존여부가 이전보다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 기업대출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향후에는 경기침체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위축과 부실화로 연결되는 경우, 이것은 다시 은행 부실로 전이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 하에서 본고는 경기변동과 중소기업대출의 관계를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실증분석하여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의 여부와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변화가 실제로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켰는가의 여부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개별은행의 자산규모, 건전성, 외국계은행 여부 등 개별은행의 특성이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들 함께 분석한다.

이후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즉,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는 원인을 중소기업부문의 구조적 측면과 금융환경적 측면에서 규명하고 제3장에서는 경기변동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개별은행의 자산규모, 건전성, 외국계은행 여부 등 개별은행의 특성이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동시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요약을 통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 확대 원인

가. 중소기업의 구조적 측면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꺼리는 첫 번째 요인은 중소기업대출에 따른 去來費用이 과다하는 사실이다. 대출건수당 거래비용은 대부분 대출규모와 무관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대출규모가 크면 클수록 단위당 대출거래비용은 낮아진다. 따라서 중소기업대출은 대출심사, 관리 및 회수 등에 따른 단위당 고정비가 대기업에 비해 높아 금융시장의 효율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종의 市場失敗(market failure)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업력이 짧거나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중소기업을 취급하는 경우 초기 심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게 된다.

둘째, 중소기업대출에는 이른바 情報의 非對稱性(asymmetric information)이 강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시장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정보를 동일하게 공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출시장에서 차입자는 사업계획의 성공 가능성과 대출상환 능력을 대출기관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대출기관은 해당 사업의 기대수익률 및 차입자의 진실성에 대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또 대출기관은 차입자가 사업실패의 위험을 과소평가할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차입자는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대출기관에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공개 수준이 낮은 반면 위험 변동성은 크게 높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대기업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점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발생이다. 逆選擇(adverse selection)은 부도확률이 이자율 상승과 함께 증가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높은 이자율은 위험도가 높은 차입자를 유인하고 위험도가 낮은 차입자를 구축하여 차입자 집합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도가 높은 차입자는 자신의 대출상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에도 대출을 받으려는 유인이 있다. 둘째, 위험도가 높은 사업계획

일수록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자율이 인상될수록 차입자는 이자비용을 감당하기위하여 리스크가 한층 큰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할 유인을 갖게 되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사업계획을 가진 차입자는 구축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출시장에는 초과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균형금리가 존재하게 되고 대출기관은 이자율을 올리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도위험성이 적은 기업을 선별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信用割當(credit rationing)을 택하게 된다.

道德的 解弛(moral hazard)는 대리인(차입자)이 주인(채권자)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취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컨대 차입자는 차입자금을 당초 사업계획 외에 유용하거나 상환노력을 게을리하여 부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때 은행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대출만기연장의 확약 등을 통해 사실대로 진술함이 유리하다는 유인을 제공하거나 담보를 요구하게 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불완전성은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되겠지만 중소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적 공시자료가 없거나 세계상의 이유 및 지식 부족으로 잘못된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모니터링하기가 어렵고, 특히 창업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이들 기업은 자금공급자가 가장 꺼리는 자금수요자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대출기관은 객관적 심사지표를 신뢰하기보다는 기업규모나 담보에 근거하여 대출을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대출관행은 미래 수익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단지 규모의 영세성 또는 담보부족으로 인해 제도권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非效率的 信用割當構造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상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위험도가 높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대출을 꺼린다. 중소기업은 規模의 零細性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시장변동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업력이 짧고 수익성 있는 사업실적 및 제도권 금융 이용경험이 부족하다. 또한 조직 및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회계 및 경영상태가 불투명하여 해당 기업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의 접근 가능성과 신뢰도가 낮다. 은행의 입장에서 중소기업대출의 수익성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중소기업에 대한 소액대출을 가계대출로 분류하기도 하는 등 중소기업 리스크에 대한 관리체계가 정교하지 못하다.

따라서 중소기업대출은 높은 리스크로 인해 일반 대출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정책당국에 의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왔다. 금리자유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면 앞서 살펴 본대로 역선택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은행의 손실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은행은 현행 대출금리하에서 信用割當을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넷째, 금융회사가 중소기업대출을 꺼리는 이유중 하나는 物的擔保 부족에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물적담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출시장이 완전하다면 은행은 기업의 미래이익의 순현재가치에 근거하여 대출규모를 결정해야하나 현실적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담보에 근거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담보물은 은행의 입장에서 대출심사의 일부인 동시에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차입자는 물적담보를 통해 사업계획의 미래 수익성과 대출상환의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기업 도산시에는 담보물에 대해 여타 채권자들에 비해 대출 은행에 상대적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때 은행은 중소기업대출에 내재된 높은 리스크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부족을 보상받기 위하여 더 많은 물적담보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본력이 취약하고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대출에 필요한 정도의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기계 및 재고자산이 중소기업 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자산은 보관이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감소하며 부도시에 청산비용이 높아 대출기관은 대체로 부동산과 같은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은행대출 거래실적이 담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나, 중소기업의 담보부족은 최초의 대출을 불가능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거래실적 신용 축적마저 어렵게 한다.

이 같은 담보위주의 대출성향은 은행의 기대이윤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담보물 평가, 등기설정, 사후관리비용 등이 수반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차입자가 지급불능 상태

가 되면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은행의 입장에서도 대부분 대출채권의 완전한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은행권 중소기업대출이 여타대출보다 **경기순응성**이 큰 이유는 첫째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외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기침체에 대출금이 우선적으로 회수 또는 축소되는 등 자금조달 상황이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들은 경기상승기에 중소기업의 신용도 및 미래성장성에 대한 엄밀한 심사없이 대출을 시행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연체율이 상승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높아 중소기업금융의 경기동행성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둘째, 대기업에 비해 지배구조 및 **회계제도가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경기침체에 수익이 악화되면 기업주가 대출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자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커 은행의 손실을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경기침체에 대기업 대출 보다는 중소기업대출을 축소할 유인이 더 크다.

셋째로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행위**도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즉, 경기침체에 은행의 부실여신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감독당국이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건전성감독을 강화하게 되면 은행은 자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 위험도가 높은 대출의 비중을 축소한다. 또한 경기침체에 은행의 부실여신 규모 확대로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대신 위험도가 높은 대출을 줄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은행은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먼저 축소하게 된다.

넷째,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는 또 하나의 원인은 **쏠림현상(herd behavior)**을 들 수 있다. 쏠림현상이란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행동을 여타 금융회사들과 동일화하여 혼자만의 실패로 인한 비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유인에서 기인한다. 다수의 동일한 실패가 혼자만의 실패보다 비난을 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은행들이 동시에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위험성이 높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금융시장의 리스크 변동시 시장참여자들이 조율되지 않은 **利己的 行動(coordination problem)**을 하게 되면 쏠림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부분최적화(suboptimal)**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업 자금조달의 경기순응성이 강화되는 경

나. 금융환경적 원인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은행의 국내진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및 성과위주 경영행태가 확산되고 단기수익성 및 안정성이 중요시되면서 금융회사와 기업간에 거래지향적 금융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은행권으로부터의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에는 정부가 공적보증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2007년 말 이후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BIS 자기자본규제 등도 이상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소기업대출의 위축과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중소기업대출

외환위기 직후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강도 높게 진행된 데다 최근에는 우량금융회사들이 경쟁력 강화차원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퇴출 및 인수·합병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즉, 1997년말 33개 이던 국내은행 수는 2004년말 19개로 감소하였으며 비은행권 금융회사 역시 2,068개에서 1,338개로 감소하였다.

<표 1> 금융회사 구조조정 현황

(단위 : 개, %)

금융권별	'97년말 총기관수 (A)	구조조정 현황					신설 등	현재 기관수
		인가취소	합병	해산·파산 영업이전 등	계 (B)	비중 (B/A)		
은행	33	5	10	—	15	45.5	1	19
비은행	2,068	155	156	503	814	39.4	88	1,338
중금	30	22	7	—	29	96.7	1	2
증권	36	5	4	3	12	33.3	18	42
보험	50	9	6	2	17	34.0	17	50
투신 ⁸⁾	30	6	2	—	8	26.7	25	47
상호저축은행	231	101	27	2	130	56.3	12	113
신협	1,666	2	108	495	605	36.3	9	1,066
리스	25	10	2	1	13	52.0	6	18
합계	2,101	160	166	503	829	39.5	89	1,357

주 : 2004년 12월말 기준

자료 :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백서』, 한국은행, 『금융시스템리뷰』

한편, 금융회사의 수는 줄어든 대신 금융회사의 대형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04년말 현재 일반은행의 평균자산 규모는 57.4조원으로 1997년말 대비 145.8% 증가하였다.

<표 2> 금융권별 평균자산 규모의 변화¹⁾

(단위 : 억원, %)

금 용 권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감률
일 반 은 행 (은행계정)	233,290 (161,899)	342,689 (303,858)	427,613 (372,098)	528,803 (454,675)	572,034 (498,058)	573,513 (513,246)	145.8 217.0
중 권	8,053	9,775	12,626	10,949	11,269	11,557	70.7
보 협	22,173	37,196	39,947	43,399	44,234	49,541	123.4
신 협	116	156	178	159	180	208	79.9

주 : 1) 평균자산 = 총자산/금융회사의 수

2) 1997년 대비 2004년 평균자산의 증감률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비은행경영통계』, 『금융통계월보』

그러나 금융회사의 대형화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소형금융회사의 경우 의사결정체계가 단순하여 대출 심사역에게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는 반면, 대형금융회사는 관측과 검증이 용이한 계량적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즉 대형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이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은 신용상태가 투명한 대기업의 정보생산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신용분석기법과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은행의 입장에서는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출건별 취급액이 작고 유발되는 부수업무의 범위도 좁아서 취급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합병을 통해 대형화될 경우, 중소기업이 합병전 금융회사와 쌓아왔던 장기적인 거래관계가 단절되며 관계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

2) 건전성감독 강화 및 성과주의 경영풍토 확산과 중소기업대출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대량 부도, 일부 대기업에서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누적되어온 금융회사의 부실을 정리하고 법적·제도적 준비를 통해 감독을 강화한 결과, 금융회사들의 생산성이나 당기순이익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

일반은행의 주요 경영 및 건전성 지표 추이

(단위 :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부실채권비율	2.7	3.5	13.6	8.8	3.3	2.4	2.8	2.0
BIS 자기자본비율	7.0	8.2	10.8	10.5	10.8	10.5	10.4	11.3
ROA	△0.9	△3.3	△1.3	△0.6	0.8	0.6	0.1	0.9
ROE	△14.2	△52.5	△23.1	△11.9	15.9	11.7	2.2	18.0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양적인 지표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한 성과 중의 하나가 금융회사도 부실할 경우 퇴출될 수 있으며 부실 금융회사의 경영진도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부의 개입으로 금융회사가 퇴출되거나 경영진이 부실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러한 과거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 여부를 확실하게 가리는 풍토의 조성은 금융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신뢰도 제고에 필수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금융과 관련하여서는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의 기업대출 의지가 급격히 위축되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정보의 투명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은행차입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최근 은행들의 거래지향적 대출¹⁾ 확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1) 금융회사가 택할 수 있는 대출전략으로는 자금수요자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관계지향적 대출(relation banking)과 비교적 단기 또는 일회성 거래에 치중하는 거래지향적 대출(transaction banking)을 고려할 수 있다(Boot and Schmeits(1998), Boot and Thakor(2000)). 관계지향적 대출은 거래 당사자인 자금공급자와 수요자에게만 알려진 정보에 의하여, 즉 특정성이 높고 시장성이 낮은 정보에 기초하여 거래되는 대출로 심사(screening), 감시(monitoring), 만기변환(maturity shifting) 등의 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전통적 개념의 대출은 통상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거래지향적 대출은 정보의 특정성이 낮아 거래 당사자 이외의 경제주체들에게도 쉽게 전달 가능하며 해당 금융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쉽다는 특징을 가진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 소비자금융 대출 및 유가증권을 통한 자금거래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특히 거래지향적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정보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단기수익성을 추구하기가 용이한 반면, 관계지향적 대출은 심사비용 등 정보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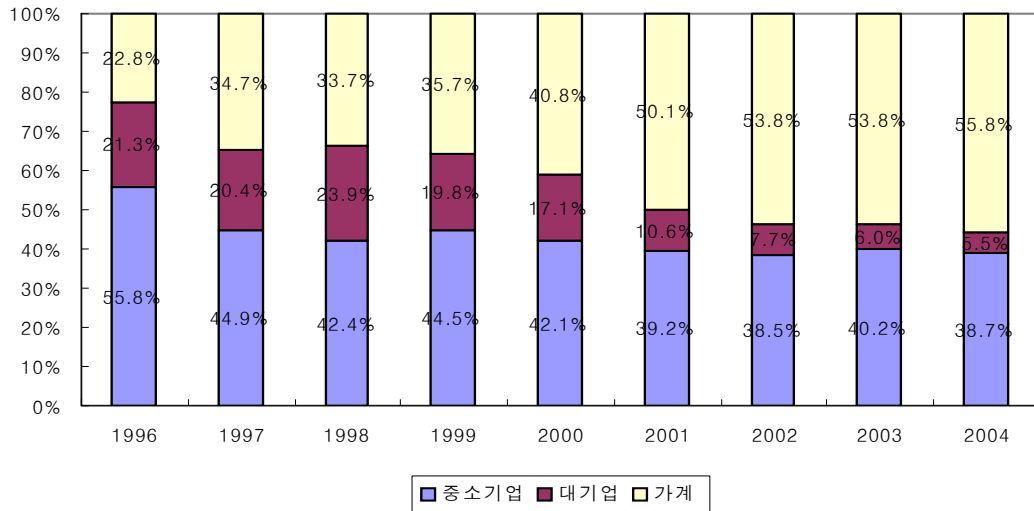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시장에 의한 규율 및 시장거래방식이 중시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들도 **단기수익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조건을 신속히 변경하는 등 금융회사-기업간 관계에서도 거래지향적 성격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²⁾ 이러한 변화는 금융회사의 기업대출 행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즉 신용이 확립된 대기업들은 금융회사와 거래지향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정보가 불투명하고 신용이 취약하여 직접자금조달이 어렵고 금융회사와의 장기적인 거래관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외환위기 이후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자금중개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대형화 추세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대출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대체자금조달 수단이 부재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후 거래지향적 성격이 강한 가계대출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계지향적 성격의 기업대출은 그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중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63.6%에서 2004년 43.5%로 감소하였으나 가계대출 비중은 동 기간중 33.8%에서 55.0%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원화대출금의 담보별 구성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출금 중 거래지향적 대출에 가까운 담보대출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반면 관계지향적 성격이 강한 신용대출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2) 은행이 대형화 및 수익성 위주의 경영전략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점차 신용평점 위주의 거래형 금융 관계이로의 이전이 일반화되고 있다. 비록 과거에 비해 국내계 은행의 중소기업 행태적·외면적 밀착 관계는 개선되고 있으나 이러한 관계가 신용평점 평가대상에 들어있는 수익성, 건전성, 담보 등 현재의 객관적·수량적 데이터를 위한 관계이지 기술관계, 혁신성, 성장성 등의 중소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한 관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은행들이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고 할지라도 국내은행들의 신용평점 위주의 신용평가시스템은 이를 충분히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행태적 관계형 금융, 실질적 거래형 금융이 강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의 해소, 정보 집중, 기술 및 무형자산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이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일반은행의 주체별 대출비중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표 4>

일반은행 담보대출 추이

(단위 : 조원,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담보대출	49.1 (42.8)	70.4 (47.6)	64.1 (45.9)	85.1 (46.2)	104.8 (45.2)	133.5 (49.3)	189.0 (52.9)	212.3 (52.4)	212.4 (50.4)
부동산담보	39.4 (34.3)	55.6 (37.6)	53.4 (38.2)	70.6 (38.3)	85.3 (36.8)	114.4 (42.3)	167.8 (46.9)	191.2 (47.2)	194.3 (46.1)
신용대출	56.7 (49.4)	62.6 (42.3)	55.7 (39.8)	76.0 (41.2)	101.0 (43.6)	107.0 (39.6)	132.1 (37.0)	154.0 (38.0)	172.5 (40.9)

주 : ()안은 비중

자료 : 금감원, 『은행경영통계』

3) 외국계 금융회사의 진출과 중소기업대출

또한 구조조정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인수와 지분율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는 등 외국계 금융회사와 전문경영인들의 국내진출과 경영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9년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2005년 1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인수계약 체결)이 인수한데 이어 최근에는 외환은행(2003년, 론스타펀드), 한미은행(2004년, 한국시티은행)도 미국계 금융회사에 인수되었다.

<표 5>

외국계은행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조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¹⁾
외은지점(a)	34 (4.2)	41 (5.0)	36 (4.4)	48 (5.5)	58 (6.8)	64 (6.3)	79 (6.7)	89 (7.2)
제일, 외환, 한국씨티은행(b)	-	-	36 (4.4)	40 (4.6)	27 (3.2)	30 (3.0)	103 (8.8)	181 (14.6)
외국계은행(a+b)	34 (4.2)	41 (5.0)	72 (8.8)	87 (10.2)	85 (10.0)	94 (9.3)	181 (15.5)	270 (21.8)

주 : 1) 2004년 10월 기준

2) ()은 은행산업 전체 대비 점유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외국계 은행의 국내시장점유율 현황』

이에 따라 2004년말 외국계은행(외은지점+외국인최대주주)의 총자산은 252.3조원으로 국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4%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같은 시장점유율은 외환위기 발생이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04년말 현재 8개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62.7%에 달하고 있다.

<표 6>

국내은행의 외국인지분율 추이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시중은행 ¹⁾	21.7	26.7	43.4	52.1	62.7
지방은행 ²⁾	2.2	11.5	8.8	18.5	31.5

주 : 1) 조흥, 우리, 제일, 하나, 외환, 신한, 한미, 국민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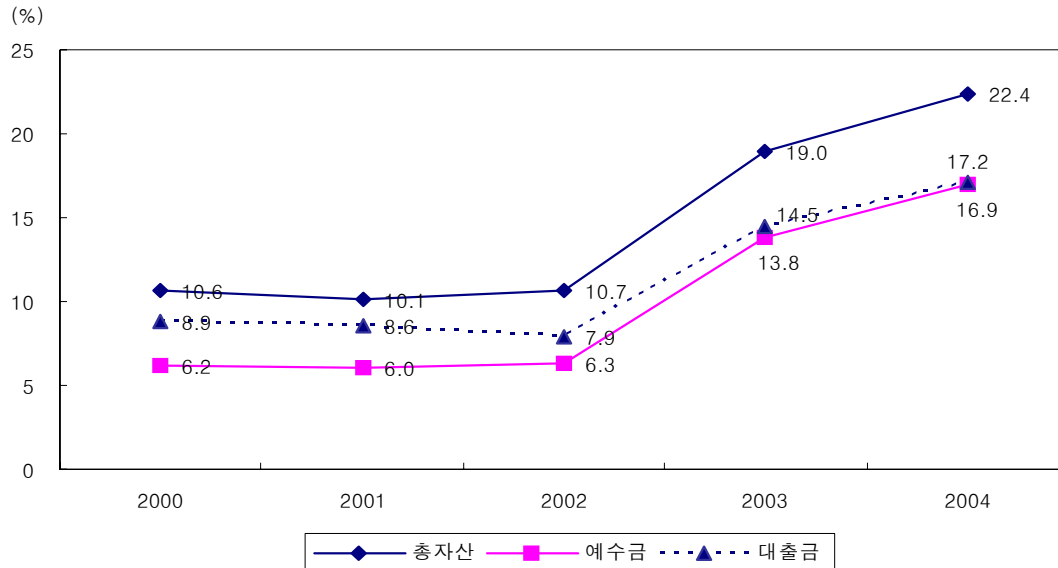
2)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자료 : 금융감독원

이 같은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업 진출 확대는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외국계 은행의 철저한 수익위주 경영전략은 중소기업 등 특정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외부충격이 있거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할시 이들 은행은 단기적 이익에만 치중한 독자적인 행동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은행의 공익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상시에도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위주의 고객유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최근 국내은행내 외국자본의 지분 증가는 은행대형

화 추세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외국계은행의 은행산업 시장점유율 추이



주 : 은행계정 말잔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실제로 외국계 은행인 제일은행, 한미은행, 외환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1999년 각각 39.4%, 59.1%, 46.6%에서 2004년 23.5%, 35.1%, 45.1%로 축소되고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경우도 각각 47.3%, 62.9%, 68.3%에서 28.6%, 41.6%, 35.3%로 크게 축소되었다. 반면에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1999년 44.6%에서 2004년 46.1%로 소폭 증가하였다. 지방은행의 경우도 이 같은 현상은 마찬가지로 외국인지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1999년 각각 77.5%, 67.1%에서 2004년 64.5%, 60.1%로 감소하였고 외국인지분율이 10%선인 전북은행은 그 비중이 1999년 53.0%에서 2004년 59.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국내 주요은행의 외국인지분율과 중소기업대출 비중 추이

(단위 : %)

	외국인지분율 ¹⁾	중소기업대출 비중 ²⁾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국민은행	76.1	47.3	44.9	29.1	31.5	30.9	28.6
신한지주	62.9	55.0	51.0	43.8	38.2	43.2	41.6
우리금융	11.6	44.6	46.7	44.2	44.1	47.3	46.1
하나은행	68.3	43.2	41.3	39.5	31.4	36.0	35.3
외환은행	71.8	46.6	48.6	46.7	44.8	45.8	45.1
대구은행	55.8	77.5	71.3	66.8	61.7	62.1	64.5
부산은행	59.2	67.1	67.2	66.6	62.7	62.3	60.1
전북은행	12.1	53.0	52.0	56.4	55.6	61.9	59.3

주 : 1) 2004년말 기준 2) 원화대출금중 비중

자료 : 외국인 지분율은 기사 참조,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4) 新BIS협약 도입과 중소기업대출

2007년말 이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新BIS 자기자본규제협약은 은행대출의 리스크의 범위 및 산정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기존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임에 따라 은행의 재무구조 및 대출자산 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신협약이 도입되면 먼저 국내 은행산업의 리스크 관리가 선진화되고 신용평가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대출 역시 현행 담보 또는 신용보증대출 관행에서 탈피하여 은행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이에 기반하여 엄격한 대출심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은행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많은 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新협약이 도입되면 은행대출의 景氣順應性(pro-cyclicality)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³⁾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3) 경기침체기에는 대출자산의 부도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잔존대출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증가한다. 또한 경기침체기에는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비용이 증가하므로 은행은 자기자본을 확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보다는 대출을 삭감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대출을 삭감하면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더욱 하락하고 이에 따라 다시 대출을 축소해야 하는 악순환이 일정기간 반복되면서 신용경색(capital crunch)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기호황기에는 필요자기자본 규모가 감소하며 은행이 신용위험을 실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新협약 하에서는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해서 적용하므로 은행들은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낮은 가계대출 및 모기지 위주로 자산운용을 할 유인이 커진다. 기업대출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거나 외부신용등급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시중은행들은 신용리스크 측정에 내부등급방식(IRB)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경우 표준방식(SA)을 적용하는 것보다 신용 위험가중치 변동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주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위험가중치가 상승하여 표준방법과의 격차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차주의 신용평가는 자기자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용리스크 프리미엄에도 영향을 미쳐 신용평가도가 낮은 차주에 대해서는 기본금리 외에 추가적으로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표 8> 익스포저별 위험가중치 비교

(단위 : %)

	종전	표준방식	기초내부등급방식 ¹⁾
투자부적격기업 대출	100	150	100~1,250
주택담보대출	20	35	3~48
기타 소매여신	100	75	5~52

주 : 1) 신용등급 BB이상(부도확률 0.98% 이하)과 LGD 45%(주택담보대출 35%)를 가정한 수치임.

新BIS협약 도입으로 중소기업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新BIS협약 국내도입기준(안)최종안』에서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하여 위험가중치를 낮추기 위한 몇 가지 우대조항⁴⁾이 마련되었다.

보다 과소평가하여 대출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팽창 및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시장 불균형이 초래되어 은행은 대출자산의 잠재적 신용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더욱 확대하게 된다.

- 4) 중소기업대출 관련 우대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대출은 소매금융으로 취급하도록 하여 위험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75%로 하향조정하였다. 둘째, 내부등급법을 사용하는 은행의 경우, 매출액이 6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는 BIS비율 산정시 유리하도록 변경된 산식을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동 산식에서는 중소기업대출간 상관계수를 최대 4%까지 하향조정하여 실질적으로 위험가중치가 20% 이상 낮아지도록 하였다. 셋째, 유통업 등 매출액이 기업 규모의 판단기준으로 부적절한 경우에는 감독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총자산을 기준으로 산식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위험가중치 10%를 0%로 하향조정하였다.

그러나 동 우대조항은 대출잔액 및 매출액 규모제약상 대부분의 법인중소 기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며 개인자영업자나 영세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출잔액이 10억원이 넘는 대부분의 법인중소기업들은 현행협약 하에서 일률적으로 10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이들 기업들도 외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등급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우대조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이들 우대조항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

5) 신용보증제도 개선안와 중소기업대출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는 정부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이 중소기업 신용위험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형태로서, 외환위기 이후 민간보증회사의 부실화로 민간보증회사의 보증공급이 크게 축소되고 공적신용보증이 중소기업 신용보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공적신용보증제도는 신용공급이 급감하는 경기침체에 신용보증 대출을 지원하여 경기상승을 견인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적신용보증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말 현재 양대 보증기금인 신보와 기보의 보증잔액은 45.2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동 보증규모는 GDP 대비 5.8%⁵⁾ 수준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과도한 신용보증은 단순히 신용력이 약한 기업뿐만 아니라 이미 신용력을 갖춘 기업, 사업성이 낮은 기업에도 신용을 공급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또한 보증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은행은 대출기업에 대한 신용심사를 소홀히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대출이 부실화할 확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다.

5) GDP 대비 신용보증비율은 미국 0.112%(2004년, 추정치), 일본 6.2%(2003년), 대만 2.7%(2004년), 독일 0.261%(2003년), 프랑스 0.328%(2003년), 영국 0.031%(2002년) 등으로 우리나라의 보증규모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 및 유럽국가, 대만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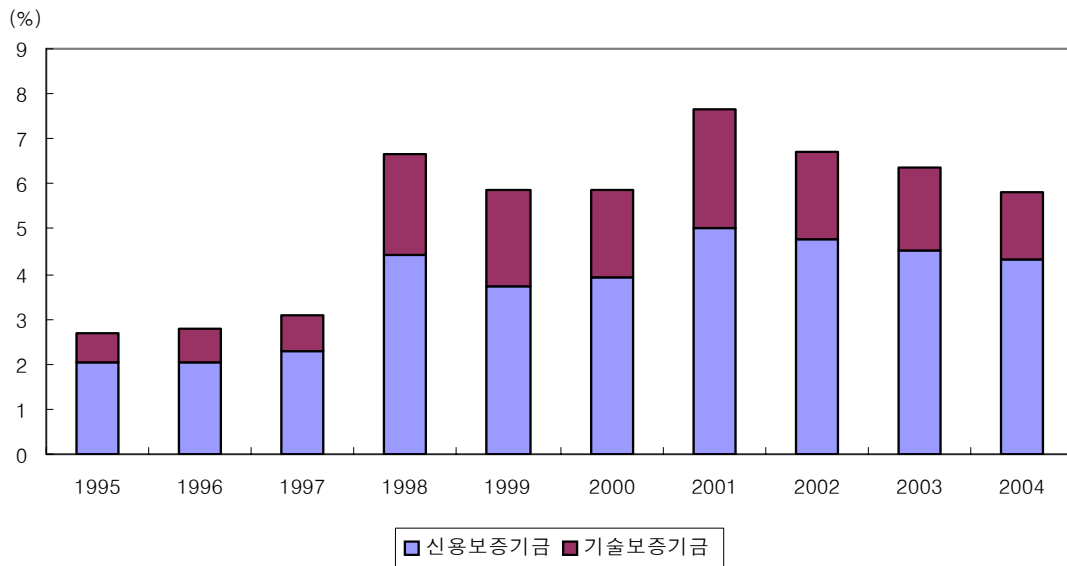
<표 9> 신보 및 기보의 신용보증 잔액 추이

(단위 : 조원,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신용보증기금	21.5	19.6	22.6	31.3	32.5	32.7	33.6
기술보증기금	10.7	11.5	11.3	16.2	13.4	13.4	11.6
합계	32.1 (6.6)	31.1 (5.9)	33.9 (5.9)	47.5 (7.6)	45.9 (6.7)	46.1 (6.4)	45.2 (5.8)

주 : ()은 GDP 대비 신용보증비율
 자료 :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림 4> GDP대비 신용보증 비율



자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보증재원을 신규 창업기업과 기술집약형 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⁶⁾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신용보증제도가 잠재적인 부실 중소기업에게까지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6)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력이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성장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기업 등을 일컫는다.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는 그동안 기술력 없이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였던 기업들은 향후 보증지원을 받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그 외 일반기업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증심사시 외부기술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한편 자체 기술평가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나 전문가 확보 및 기술평가 표준모델 구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부실보증이 누적되면서 신보·기보 양대 보증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기술력 및 신용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신용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신용보증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표면적인 보증규모 축소에 그칠 위험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용자보다는 투자 또는 투융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 선진국과 비교하여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대부분이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신용보증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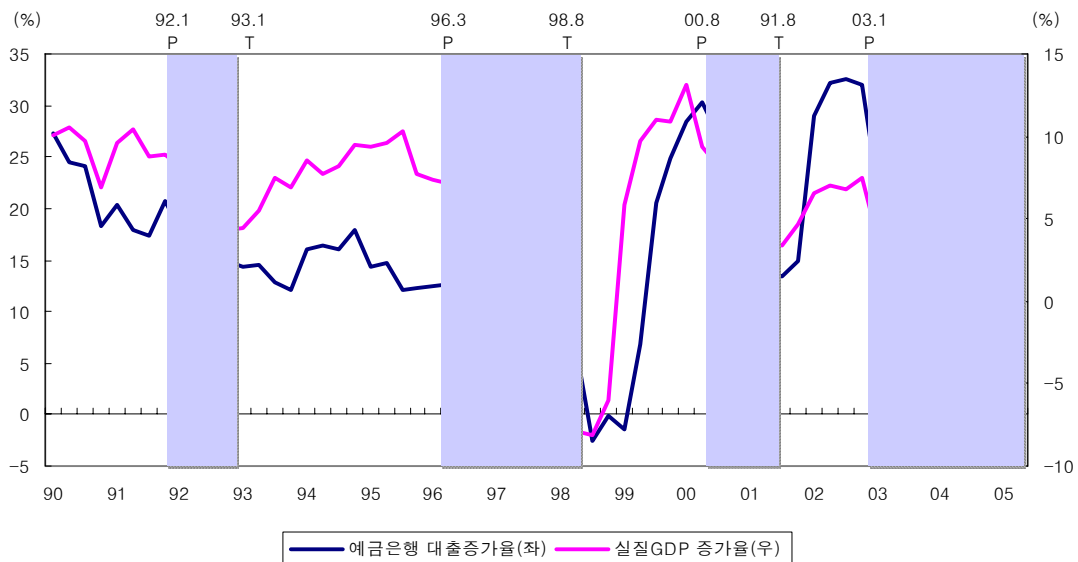
직접자금조달시장 등 은행대출 외에 대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보증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중소기업 전반의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경기가 나쁠 때 특별융자 등의 형태 보증규모를 늘렸던 행태가 사라지면서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기업대출의 동행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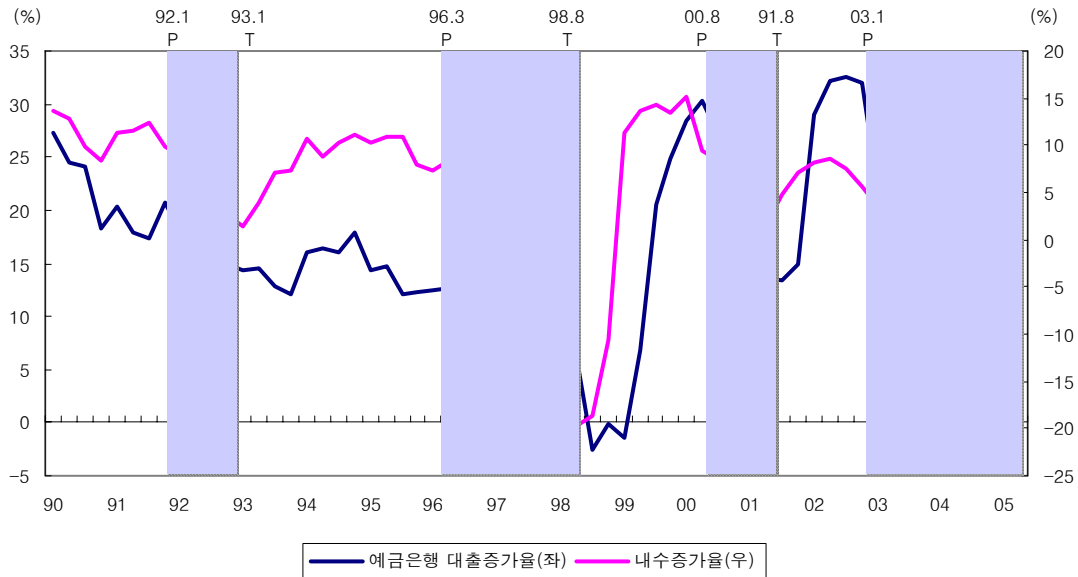
가. 경기변동이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국내 예금은행의 대출은 1990년대 이후 뚜렷한 경기순응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대출 증가율과 GDP 증가율간의 1990년대 이후 시차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분기 이후 시차상관계수가 0.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증가하여 동 상관계수가 0.74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질GDP에서 순수출 부문을 제외한 내수 부문의 성장률과 은행대출 증가율도 2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수가 확대(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 은행대출은 점차 증가(감소)하기 시작해서 2분기 이후 가장 큰 순응성을 보이며 0.72의 시차상관계수를 나타내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동 상관계수는 0.82로 증가하여 경기순응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최근 들어 예금은행의 대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실질GDP 및 내수와의 순응성이 다소 약해진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국내 예금은행 대출과 실질GDP와의 관계



<그림 6> 국내 예금은행 대출과 내수와의 관계



자료 : 한국은행

<표 10> 경기변동 변수와 은행대출간의 시차상관계수

		X_{t-4}	X_{t-3}	X_{t-2}	X_{t-1}	X_t	X_{t+1}	X_{t+2}	X_{t+3}	X_{t+4}
실질 GDP	90.1Q~05.2Q	-0.28 (-2.24)	-0.16 (-1.25)	0.05 (0.41)	0.32 (2.62)	0.55* (5.05)	0.65* (6.68)	0.62* (6.15)	0.43* (3.67)	0.19 (1.50)
	96.1Q~05.2Q	-0.36 (-2.33)	-0.21 (-1.32)	0.03 (0.19)	0.33 (2.12)	0.58* (4.28)	0.74* (6.62)	0.72* (6.17)	0.49* (3.40)	0.21 (1.29)
내수 ²⁾	90.1Q~05.2Q	-0.28 (-2.27)	-0.21 (-1.67)	-0.03 (-0.25)	0.22 (1.76)	0.47* (4.14)	0.66* (6.88)	0.72* (8.08)	0.59* (5.69)	0.37* (3.12)
	96.1Q~05.2Q	-0.35 (-2.27)	-0.26 (-1.64)	-0.06 (-0.39)	0.21 (1.32)	0.48* (3.32)	0.73* (6.45)	0.82* (8.59)	0.68* (5.52)	0.42* (2.80)

주 : 1) X_t 는 예금은행 총대출금 증가율
 2) 순수출을 제외한 실질GDP
 3) ()은 t-값,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역시 실질GDP 및 내수성장률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998년 전년대비 8.5% 감소하였던 중소기업대출은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33.1%, 18.0%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1년 경기회복이 주춤하자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역시 11.6%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2년에는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전년대비 30.4% 증가하였다. 2003년에도 중소기업대출은 대기업의 대출수요 감소 및 가계대출 부실화에 따른 은행의 대체 자금운용수단으로 활용

되면서 두 자릿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경기침체의 영향을 반영하여 증가율이 18.5%를 기록하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특히 2004년에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증가세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0.1%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의 은행대출은 2001년 큰 폭으로 감소한 이래 2004년 현재까지 매년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은행차입을 축소하는 자금조달패턴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가계대출 역시 외환위기 이후 2000~02년까지 매년 40%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과열양상을 나타내다 최근에는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으로 뚜렷한 경기순응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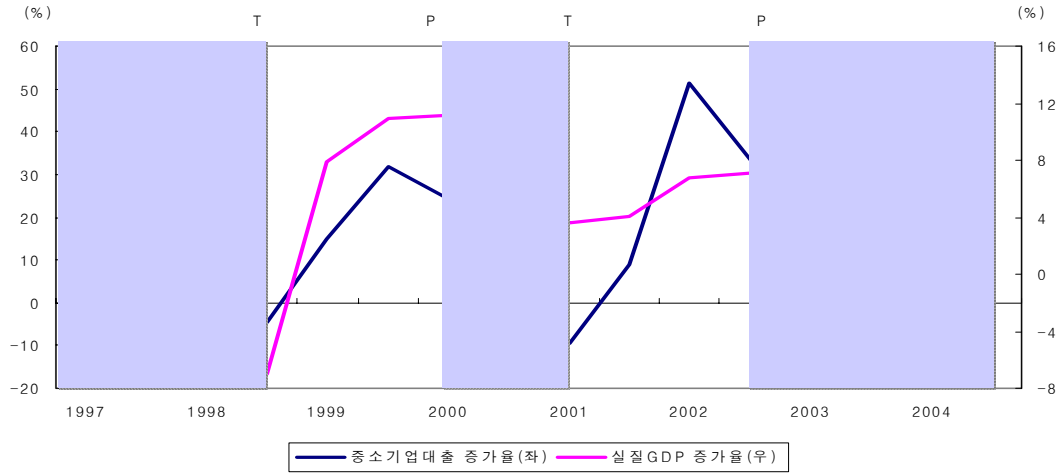
<표 11> 경기변동변수 및 일반은행의 대출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대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실질GDP	4.7	-6.9	9.5	8.5	3.8	7.0	3.1	4.6
내수	0.4	-17.2	13.2	8.5	3.5	7.4	0.6	1.3
중소기업	5.3	-8.5	33.1	18.0	11.6	30.4	18.5	0.1
대기업	24.9	3.8	4.5	7.8	-25.3	-3.9	-11.4	-5.6
가계	98.7	-5.5	33.8	42.8	47.2	42.3	13.5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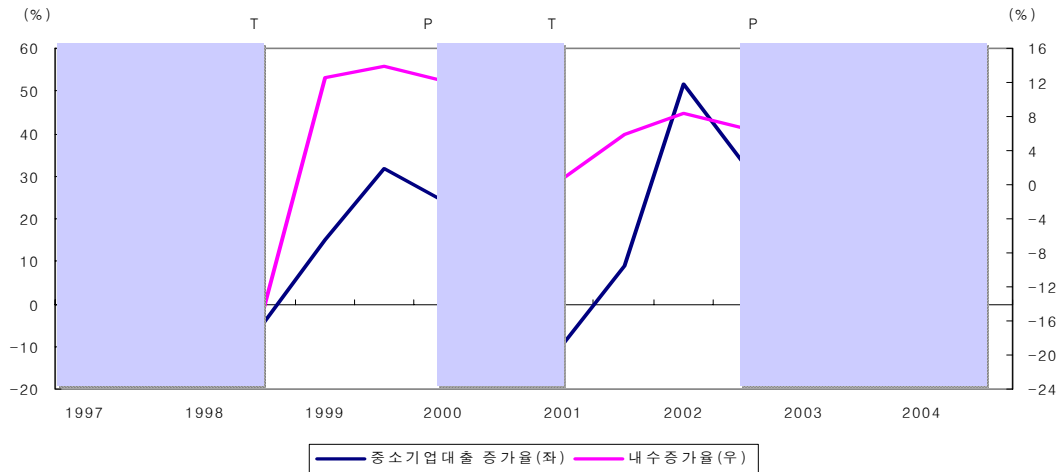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한편 2002~03년 동안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한데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에는 경기순응성이 오히려 축소되는 모습이다. 2004년 들어 GDP 및 내수가 전년대비 소폭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 증가세는 오히려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내수의 준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근 중소기업대출 증가율과 내수성장률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내수가 다소 회복되는 상황 하에서도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의 부실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출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7> 일반은행 중소기업대출과 실질GDP와의 관계



<그림 8> 일반은행 중소기업대출과 내수와의 관계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편 국내 일반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을 매 반기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 은행을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4대 대형은행과 기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대형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은 보다 뚜렷한 경기순응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2001년 상반기중 실질GDP가 3.6% 증가하는데 머물렀던 당시 4대 대형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을 전년동반기 대비 15.3%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가 확장국면에 들어선 2002년 상반기중에는 중소기업대출을 69.6% 확대시켜 기타 시중은행의 36.8% 및 지방은행 18.9%의 대출 증가율

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대형은행의 경우 경기상승기에는 업황이 개선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경기침체기에는 대출을 축소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단기수익성 경영전략이 정착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은행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대출 조정폭이 적어 경기침체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중소기업대출을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시현하였다.

<표 12> 경기변동과 은행 중소기업대출 추이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실질GDP	7.9	11.0	11.1	6.2	3.6	4.1	6.8	7.1	3.0	3.2	5.4	3.9
4대 대형은행 ³⁾	17.0	37.9	28.9	21.5	-15.3	12.4	69.6	35.9	31.8	19.1	3.8	-0.8
기타 시중은행	19.4	26.5	17.2	14.7	-2.7	0.5	36.8	34.4	30.3	18.9	-1.4	-3.7
지방은행	1.7	21.9	19.8	9.1	3.7	9.3	18.9	20.8	23.0	16.1	9.3	11.7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 영역은 GDP 성장률이 1999~2004년 평균성장률 이하인 구간을 나타냄.

3) 총자산 기준

1997년 이후 반기자료를 사용한 일반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과 실질 GDP 성장률간의 시차상관계수는 시차없이 동행상관계수가 0.58로 나타나 중소기업대출이 2분기 내에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수성장률과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역시 동반기 내에 0.61의 상관계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GDP와의 상관계수보다 내수와의 상관계수가 더 크게 나타나 중소기업대출이 내수경기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경기변동 변수와 은행 중소기업대출간의 시차상관계수

	X_{t-2}	X_{t-1}	X_t	X_{t+1}	X_{t+2}
실질GDP	-0.23 (-0.95)	0.31 (1.30)	0.58** (2.85)	0.34 (1.45)	-0.13 (-0.52)
내수	-0.08 (-0.32)	0.51** (2.37)	0.61* (3.08)	0.21 (0.86)	-0.18 (-0.73)

주 : 1) X_t 는 일반은행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2) ()은 t-값, * 및 **는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함.

나. 실증분석

은행전체(일반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대체로 경기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대출 공급측면에서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은행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대출총량자료(aggregated data)를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경기변동에 따른 은행별 대출공급변동을 구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은행별 자료를 이용하여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모형은 1999년부터 2004년 기간 동안 개별은행⁷⁾ 중소기업대출 반기 패널자료⁸⁾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Delta \ln x_{it} = \alpha_i + \Delta \ln y_t + \Delta control_t + \Delta \ln y_{t-1} \cdot \ln z_{it-1} + \Delta control_{t-1} \cdot \ln z_{it-1} + \epsilon_{it}$$

여기서 x_{it} 는 은행 i 의 t 기 시점의 중소기업대출, y_t 는 경기변동의 대리변수인 실질GDP, $control_t$ 는 통제변수로서 콜금리 또는 기준증감율을 각각 의미한다. 한편 z_{it} 는 은행 i 의 특성변수로서 은행별 자산규모, BIS비율, 외국계은행 여부에 따른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더미변수를 번갈아 사용하였다.

먼저 경기변동의 대리변수로서 실질GDP의 전기대비 로그차분값을 사용하여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콜금리 변동분 또는 기준 증감율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통화정책이 은행의 대출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은행별 자산규모, 건전성지표인 BIS비율, 외국계은행 여부 등 은행별 특성에 따라 경기변동에 따른 중소기업대출 변동이 상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들 변수와 실질GDP의 교차항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은행규모 및 안정성이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콜금리 및 기준과 개별은행 특성변수들의 교차항을 통해 은행별 특성에 따른 중소기업대출의 통화정책 민

7)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포함하였으며 특수은행의 경우 일반은행과 경영행태가 크게 다른 점을 감안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8) 분석기간중 합병되거나 인수된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은 합병 및 인수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단순 합산되어 처리되었다. 즉, 국민[(주태+동남)+(국민+대동)], 신한[동화+신한], 외환, 우리[한빛(한일+상업)+평화], 조흥[조흥+충북+강원], 하나[하나+충청+보람+서울], 한국씨티[한미], SC제일[제일] 등 8개 시중은행 및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6개 지방은행의 패널데이터가 본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감도를 추정하였다. 한편 은행특성변수인 자산규모와 BIS비율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두 변수를 함께 사용하지 않고 각각 1개씩만 사용하여 모형을 구분하였다.

<표 14> 일반은행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 실증분석 결과

통제변수 은행특성변수	콜금리 사용			지준증가율 사용		
	자산규모	BIS비율	외국계은행 더미	자산규모	BIS비율	외국계은행 더미
피설명변수 : $\Delta \ln(SME)$						
설명변수 :						
$\Delta \ln(GDP)$	1.289*** (12.33)	1.208*** (10.13)	0.368*** (3.893)	1.354*** (3.592)	1.572*** (4.728)	0.271*** (3.149)
$\Delta control$	-0.055*** (-3.039)	-0.023* (-1.697)	-0.023*** (-3.366)			
$\Delta \ln(RB)$				0.702*** (3.669)	0.727*** (4.397)	0.682*** (8.608)
$\Delta \ln(GDP) \cdot$ 은행특성변수	0.070*** (10.19)	0.094*** (8.063)	0.302 (1.043)	0.065*** (2.826)	0.117*** (3.901)	-0.158 (-0.567)
$\Delta control \cdot$ 은행특성변수	-0.001*** (-2.666)	-0.001* (-1.713)	0.001 (1.615)			
$\Delta \ln(RB) \cdot$ 은행특성변수				0.045*** (2.926)	0.079*** (3.602)	0.078 (0.323)
R^2	0.237	0.120	0.146	0.174	0.227	0.113
$\overline{R^2}$	0.223	0.104	0.125	0.158	0.213	0.097
$D. W.$	1.81	1.84	1.63	1.77	1.76	1.67

주 : 1) 은행특성변수인 자산규모 및 BIS비율의 단일항 계수는 각각 정(+)의 유의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2) ***, *는 각각 추정치가 1%,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을 의미함.
 3) 여기서 외국계은행은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을 나타냄.

추정방법은 회귀방정식을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⁹⁾으로 추정하였으

9) 본고에서는 교란항 ε_{it} 가 통상적으로 관측되지 않는 횡단면(은행)별 특화효과(unobservable individual specific effect) μ_i 와 순수교란항 u_{it} 만을 포함하고 시간특화효과(time specific effect)는 포함하지 않는 일방오차요인회귀모형(one-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오차항은 다음의 형태를 갖게 된다.

$$\varepsilon_{it} = \mu_i + u_{it}$$

나, 그 결과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 추정결과 통제변수로 콜금리 변동분 또는 지준 증가율을 사용한 경우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문제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분산일방오차요인회귀모형(heteroskedastic one-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에 기초한 가중회귀(weighted least square; WLS)¹⁰⁾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기변동변수인 실질GDP 성장률은 정(+)의 계수 추정치를 가지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들이 경기호황기에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고 경기침체기에는 대출을 축소하는 경기순응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¹⁾ 먼저 통제변수로 콜금리를 사용한 경우에는 콜금리변동분에 대해 부(-)의 부호를 갖는 유의한 계수가 추정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은행대출이 콜금리 등 통화정책변수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원리에 의해 금리가 결정되고 은행들이 금리변동에 따라 자산보유 및 대출운용을 조정하면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가운데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¹²⁾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

10) 본고의 분석에서 사용된 이분산일방오차요인회귀분석(heteroskedastic one-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은 오차항 가운데 μ_i 의 분산이 횡단면별로 상이한 경우에 사용하는 패널가중회귀모형으로 이분산성은 White test를 통해 검정하였으며, 이 경우 μ_i 는 다음의 분포를 갖게 된다.

$$\mu_i \sim N(0, \omega_i^2)$$

11)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하여서는 경기변동 변수로서 내수관련 지표의 사용이 더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실질GDP에서 순수출부문을 제외한 내수성장률을 경기변동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그 결과가 실질GDP를 사용한 경우와 추정치의 방향과 유의성에 있어 정확히 일치하였고, 다만 계수 추정치의 절대값에 있어서 소폭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경기변동의 보다 일반적인 변수라 할 수 있는 실질GDP를 사용한 결과만을 본문에 서술하였다. 경기변동의 대리변수로서 실질GDP 증가율 대신 실질GDP에서 순수출을 제외한 실질내수 증가율을 사용한 회귀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Delta \ln(SME) = -0.051 + 1.001 \cdot \Delta \ln(GDP_t) - 0.051 \cdot \Delta call_t + 0.069 \cdot \Delta \ln(GDP_{t-1}) \cdot \ln(Asset_{t-1}) - 0.001 \cdot \Delta call_{t-1} \cdot \ln(Asset_{t-1})$$

(-0.87)
(8.52)***
(-3.22)***
(8.78)***
(-3.56)***

$R^2 = 0.436$
 $\overline{R^2} = 0.422$
 $D.W. = 1.74$

즉, 실질GDP 증가율을 사용한 경우와 추정치의 방향과 유의성에 있어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나, 다만 추정계수치에 있어서 소폭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은행대출경로(bank lending channel)는 통화정책의 변경이 직접적으로 은행의 대출공급능력을 변화시켜 소요자금의 조달을 주로 은행차입에 의존하는 기업 및 가계의 투자, 소비활동이 변화하여 실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통화정책의 신용중시견해(credit view)에 입각하고 있는

출총량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은행의 대출변동 중 금리변동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변동분을 식별하기가 어려우나 본고의 분석에서는 은행별 패널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각 은행별로 대출변동의 정도가 상이할 경우 이는 대출의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측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실질GDP와 은행별 자산규모의 교차항 계수가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경기가 상승(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축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¹³⁾ 이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형화된 은행들이 단기 수익성 위주의 경영행태를 강화하면서 경기상황에 따라 대출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커 대출운용의 폭이 제한적인데다 지역 중소기업과 장기간에 걸쳐 관계형 금융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대출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특성변수로 BIS비율을 사용한 경우에도 교차항의 추정계수가 정(+)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건전성이 높은 은행일수록 중소기업대출의 경기변동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산규모 또는 BIS비율을 사용한 경우 모두 콜금리와 교차항이 부(-)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대형은행이거나 건전성이 높은 은행일수록 금리변동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정하

데, Bernanke와 Blinder(1988)에 따르면 자본시장은 참가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등으로 은행대출 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제주체(주로 중소기업 및 가계)들은 통화긴축으로 은행대출이 여의치 못할 경우 투자 및 소비지출을 축소하게 되고 그 결과 총수요가 위축된다.

반면 통화중시견해(money view)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은행대출시장은 완전히 대체관계에 있어서 은행이 유가증권투자를 위해 기업대출을 줄이더라도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므로 은행대출경로가 작동할 여지가 없게 된다. 한편 통화중시견해는 통화긴축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의 투자수요 등 총수요가 위축된다는 금리경로(interest rate channel)를 중시하고 있다.

13) 한편 경기변동변수인 실질GDP 증가율에 대한 4대 대형은행, 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더미변수를 포함시킨 회귀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Delta \ln(SME) = 0.057 + 0.426 \cdot \Delta \ln(GDP_t) + 0.504 \cdot \Delta \ln(GDP_t) * Dum - 0.014 \cdot \Delta call_t + 5.274 \cdot \Delta \ln(GDP_{t-1}) \cdot \ln(Asset_{t-1})$$

$$(4.12)^{***} \quad (4.31)^{***} \quad (1.69)^* \quad (-2.22)^{**} \quad (2.66)^{***}$$

$$R^2 = 0.201 \quad \overline{R^2} = 0.197 \quad D.W. = 1.79$$

에서처럼 대형은행 더미변수 추정치가 정(+)의 유의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은행일수록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중소기업대출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산규모가 크거나 안정성이 큰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화정책 변경 또는 시장금리 변동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외부충격에 대해 중소기업대출을 더욱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수익성 제고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화정책변수로 지준증가율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준증가율이 상승하면 은행대출 증가율이 높아지므로 계수들의 부호가 콜금리와 반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지준증가율의 추정계수가 정(+)의 부호로 나타났으며 자산규모 또는 BIS비율과의 교차항 계수는 모두 부(-)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규모가 크거나 안정성이 높은 은행일수록 지준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회귀분석에서는 외국계 은행의 진입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외국계은행 더미변수를 은행특성변수로 사용한 모형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외국계 은행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내국계 은행에 비하여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단기 수익성을 중요시함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 경기변동 변수 또는 통화정책 변수와의 교차항이 유의미한 값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외국계은행의 진입에 따른 영향은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을 요약하면 국내 일반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실질GDP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기순응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GDP와 은행 특성 변수와의 교차항을 통해 추정한 결과 자산규모가 큰 대형은행이거나 건전성이 높은 은행일수록 중소기업대출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대형은행들이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은행대출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기상승기에는 오히려 중소기업대출을 적극 운용하되 경기침체기에는 이를 빠르게 조정하는 등 경기상황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 및 대출운용을 최적화하여 수익성 제고를 꾀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¹⁴⁾

14) 종속변수로서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대신 은행실무에 보다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별 총대출 대비 중소기업대출비중, 경기변동의 대리변수로서 중소기업경기지수(중기BSI), 통제변수로서

4. 결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대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변동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도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라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경기침체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위험(risk)이 큰 중소기업대출을 우선적으로 회수 또는 감축하는 반면에, 경기확장기에는 은행들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대출심사 없이 대출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여타 대출형태보다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되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금융회사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성과위주의 경영형태, 외국계 금융자본의 국내 진출 등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산업내에 수익성 및 안정성 위주의 시장원리가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금융회사들도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행태를 신속히 변화시키는 등 금융회사와 기업간에 거래지향적 금융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는 기업대출 규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고 담보가 부족해 주로 관계지향적 대출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대출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가 단순히 중소기업대출 규모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중소기업의 수익성 및 생존여부까지도 경기

콜금리 대신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다시 시도해 보았다.

$$\ln\left(\frac{\text{중기대출}}{\text{총대출}}\right) = 2.76 + 1.517 \cdot \ln(\text{중기BSI})_t + 0.017 \cdot \ln(\text{보증규모})_t - 0.489 \cdot r_t + 0.065 \cdot \ln(\text{중기BSI})_t \cdot \ln(\text{Asset})_t$$

(2.98)***
(26.4)***
(0.47)
(-13.77)***
(6.43)***

$R^2 = 0.927$
 $\bar{R}^2 = 0.926$
 $D.W. = 2.30$

이상의 결과는 총대출 대비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중소기업경기지수에 대해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에 실세금리 변화에 대해서는 부(-)의 유의적 영향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은행의 규모가 클수록 경기변동에 따라 중기대출비중을 민감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기보 및 신보의 공적보증규모는 중소기업대출비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경기변동변수로 중소기업 부도건수를 사용한 실증분석에서 중소기업 부도건수는 중소기업대출에 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금융시장 및 경제전반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14개 국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관련 은행별·반기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 여부와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환경 변화가 실제로 중소기업의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켰는가의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금융환경 변화의 대리변수들로는 시중은행의 대형화를 대리하는 은행별 자산규모, 은행의 안정성·건전성을 반영하는 BIS 자기자본비율 및 외국계은행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각각 사용하였다.

먼저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 국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실질GDP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뚜렷한 경기순응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질GDP와 은행별 자산규모 간의 교차항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형화가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자산규모가 큰 대형은행일수록 경기변동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을 더욱 민감하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질GDP와 은행별 BIS 자기자본비율간의 교차항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건전성이 높은 은행일수록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실질GDP에 외국계은행 더미를 교차시킨 경우의 분석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외국계은행 여부가 중소기업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외국계은행의 진입에 따른 영향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을 요약하면 국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실질GDP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기순응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GDP와 은행 특성 변수와의 교차항을 통해 추정된 결과 자산규모가 큰 대형은행이거나 건전성이 높은 은행일수록 경기에 민감하게 중소기업대출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환경 변화, 즉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건전성 감독 강화에 따른 안정성 위주의 경영행태 등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은 향

후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이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BIS 자기자본규제 협약 하에서는 은행이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이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대출이 보다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축소하려는 최근의 움직임도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경기침체에 특유형태로 보증규모를 늘려 중소기업을 지원하던 기존의 행태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 자금조달 환경이 크게 변화되면서 향후에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변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및 생존여부가 이전보다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기업대출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현재 상황 하에서 경기침체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위축과 부실화로 연결되는 경우, 이것은 다시 은행 부실로 전이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중소기업 부실-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고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및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은행경영 및 정책입안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양자에게 모두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강동수, 「중소기업의 부실현황 및 구조조정방안」, 『연구보고서』, 2004-08, 한국개발연구원, 2004.12.
- _____ · 김준경 · 최용석, 「국내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보고서』, 2004-04, 한국개발연구원, 2004.12.
- _____ · 윤택,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신용보험제도」, 『연구보고서』, 2003-02, 한국개발연구원, 2003.7.
- 강종구,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 원인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제 214호, 한국은행, 2005.
- _____ · 함준호, 「혁신 중소기업 금융과 은행의 역할」, 『혁신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 방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7, pp. 51~87.
- 김현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04-05, 한국개발연구원, 2004.12.
- 김현정, 『외환위기 이후 은행-기업 관계의 변화』, 한국은행, 2002.
- 박형근, 「은행대출경로의 유효성 분석」, 『조사통계월보』, 2003년 1월호, 한국은행, 2003.1, pp. 32~53.
- 서근우, 「중소기업 금융의 현황과 과제 : 관계형 금융을 중심으로」, 『금융조사보고서』, 2003-07, 한국금융연구원, 2003.12.
- 이건호 · 김서경 · 이태규, 「기업금융시스템 하부구조 개선방안」, 『연구』, 04-22, 한국경제연구원, 2004.9.
- 이병기, 「글로벌 경쟁체제와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정책보고서』, 2004-07, 한국경제연구원, 2004.12.
- 진익, 「신 바젤자기자본협약 도입에 따른 은행대출의 경기동행성 강화 현상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제 197호, 한국은행, 2004.
- _____, 「은행중심 시스템하의 안정적인 중소기업금융 구축 방안」, 『KCGF Research』, 2004-01, 신용보증기금, 2004.9.

- A. Doran and J. Levitsky, "Credit Guarantee Schemes for Small Business Lending" *A Global Perspective*, Vol.1, Graham and Bannok and Partner Ltd. (GB&P), pp. 2~104, 1997.4.
- Berger, Allen N. and Gregory F. Udell, "Small Business Credit Availability and Relationship Lending: The Importance of Bank Organizational Structure", *Economic Journal*, 112(February), F32~F53, 2002.
- Bernanke, Ben S. and A. S. Blinder, "Credit, Money, and Aggregate Demand",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8, pp. 435~439, 1988.
- Kashap, A. K. and J. C. Stein, "The Impact of Monetary Policy on Bank Balance Sheets", *Carnegie 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42, 1995.
- _____ and Wilcox, D. W., "Monetary Policy and Credit Conditions: Evidence from the Composition of External Fina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3, pp. 78~98, 1993.
- Leland, H. E and D. H. Pyle, "Information Asymmetries, Financial Structure, and Financial Intermediation", *Journal of Finance*, pp. 371~387, 1977.
- Stiglitz, J. E and A. Weiss,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pp. 850~872, 1981.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Cycle and SME Financing

Yong-Sang Shyn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7~1998, the co-movement between Korean banks' lending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hereafter SME) and business cycle has been more intensified than before. This means that SME lending have responded more volatily over business cycle before the crisis. These facts would seem to indicate that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fundamental change in the SME lending market in Korea.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asons that have magnified the co-movement between business cycle and SME lending, and to provide strategic tools to alleviate the co-movement. For this purpose, the core ability to execute SME lending properly must be ascertained in the context of badly restricted information on the credit-worthiness of SMEs. That is to say, we have to find the means available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ies in SME financing.

In this paper, I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cycle and Korean banks' SME lending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with semiannual panel data classified by banks during 1999~2004 period. In addition, I investigate the causes to amplified the cyclicity of SME lending.

Estimation results provide the evidence that the cyclicity of Korean banks' SME lending is substantial. I also find the evidence that the cyclicity of Korean banks' SME lending increases in its magnitude when the real GDP interacted with the size variable or soundness variable such as banks' asset size and BIS ratio was incorporated. This implies that the trend of consolidation and soundness-oriented fund's operation in bank sector is dominant factor to amplified the cyclicity of SME financing after the financial crisis.